

#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은 우리 민족통일을 위한 발돋움

작년 6월 이맘때로 기억된다. 협회 임원들과 함께 남북농민통일대회 참석차 북한을 방문하였다. 처음 밟아본 북녘의 풍경은 마치 어린시절 동네 어귀에서 뛰어놀던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게 만들 정도로 정겹게 느껴졌다. 하지만 남한의 70년대를 생각하게 하는 북녘 동포들은 남한사람들에 비해 너무나도 왜소해보였다. 90년대 중반 100만명이 아사했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격은 더욱 왜소할 것이라고 동행한 지인의 설명이었다. ‘최소한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만이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울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 끝에 동행한 임원들과 대북우유지원을 구상하게 되었다.

최근 북한관련 보도를 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비판적으로 보인다. 북핵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바 있다. 또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 구호 단체인 WFP(세계식량계획)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북한 주민들 가운데 식량 배급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약 650만 명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오는 8월에 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르면 WFP가 불과 150만 명에게만 식량을 공급하도록 원조 계획을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500g의 식량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일일 식량 배급량은 지난해 말까지 300g이었으나 1월부터 250g으로 줄었으며 이마저도 200g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g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칼로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성장기에 있는 북녘의 어린이들에게 최소한의 영양이라도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같은 한민족으로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협회와 굿네이버스, 서울신문, CBS기독교방송국 등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은 우리우유를 통해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선물하고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한민족 어린이의 건강을 키워주기 위한 운동이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는 우유는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개선을 위한 최적의 식품이다. 우리 낙농가들이 정성껏 생산한 우유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뜻 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통

일을 위한 한걸음을 더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낙농가들은 값싼 저질의 혼합분유 수입과 이로 인한 생산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DDA협상과 FTA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낙농가들 스스로 우리 우유시장을 보호하고 우유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낙농자조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낙농가들이 자조금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자조금사업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금번의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은 낙농가들에게는 낙농업계에 닥친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를, 또 낙농가가 생산한 우유로 한민족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긍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 통일시대 있을 수 있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절감하고, 남북한 어린이들의 체격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극

---

**우유는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개선을 위한 최적의 식품이다. 우리 낙농가들이 정성껏 생산한 우유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뜻 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통일을 위한 한걸음을 더하는 것이다.**

---

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1일 우리협회에서는 우유의 날 기념식과 함께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 추진을 선포하였다. 이미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에 참여키로 하고 성공적인 운동 전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일우유 보내기운동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운동홍보와 성금모금을 실시하여 광복절인 8월 15일에 1차로 통일우유를 전달할 예정이다. 통일우유 보내기운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낙농가 여러분과 관련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